

떴떴하지 않은 즐거움, 길티 플레저

작가 에세이

조자영

수필가

한국문협·광주문협 회원



“책 재밌소.”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손님이 돌아와 묻는다. 오지랖 넓은(?) 그의 호기심에 잠시 의아해하다 이내 정곡을 찔린 아이처럼 더듬거리며 답한다. “아, 네. 재밌네요 하하.” 사실, 재미는 없다. 습관적으로 볼 뿐. 더 정확하게는 잉여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위다. 그마저 이리저리 흘러들어오는 잡음과 생각들로 인해 스캔하듯 눈으로만 훑을 뿐 머릿속에 남지 않고 곧바로 흘러나가 버린다.

재미라, 재미있는 게 대체 뭘까. 그리고 보니 찾기가 어렵다. 요즘엔 일을 마치고 동네 한 바퀴 걷거나 한국과 일본의 실력자들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현역가왕’을 보고,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그들의 연애에 대리만족할 뿐이다. 일하고, 먹고, 자고, 하루는 대체로 재미없는 일들의 연속. 때때로 헛헛함도 밀려온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일탈을 소망하며 여행에 빠지고 자기만의 취미생활에 집중한다.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라는 말이 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며 즐기게 되는 행동’이다.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즐기는 쾌락, 떴떴하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 내겐 술을 마시는 일이나 반숙에 커피를 들이붓는 일, 긴 시간 스마트폰을 붙들고 할 일을 미루며 과하게 게으름을 피우는 일 등이다. 밤새 잠 못 들어 괴롭고 내일 일일까지 지장을

줄 걸 뻔히 알면서도 취하고, 위가 상한다는 걸 알고도 공복에 모닝커피를 마신다. 미물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국 자괴감이 밀려오는 걸 술하게 체험하면서도 제어의 게으름은 일상이 되었다.

지난 가을엔 친정집 앞마당에서 나른한 별을 쬐다가 옆 밭의 밤나무에 자꾸 눈길이 갔다. 시골 인심이라지만 남의 밭 열매를 탐하는 건 엄연한 범죄, 하지

“길티 플레저라는 말이 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며 즐기게 되는 행동’이다. 관성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길티 플레저의 유혹을 거부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일하고, 먹고, 자고, 하루는 재미없는 일들의 연속. 때때로 헛헛함도 밀려온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일탈을 소망하며 여행에 빠지고 자기만의 취미생활에 집중한다.”

만 동생과 함께 기어이 밤 서리에 나섰다. 굵고 실한 밤이 바구니에 담길수록 기쁨도 쌓여 갔다. 아니, 짜릿했다. 남의 것을 몰래 훔치며 미칠 듯이 날뛰는 그 심장 박동의 스릴을 무엇에 견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몰려오는, 어쩔 도리 없는 죄책감이 나보다 더 들떠있는 동생을 채근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가책도 잠시, ‘이 정도 서리는 죄가 되지 않

아.’ 다독이며 난 공범에게 아랑 넓은 언니 행세까지 하고 있었다.

관성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길티 플레저의 유혹을 거부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 밤늦게 치킨을 시켜 포식하거나 당 조절을 해야 할 사람이 다디단 믹스커피를 두 개씩 타서 즐기는 것 정도는 약과일 테다. 게임과 도박에 빠지고 흡연에 중독되거나 바람에 휘말리는 등 자칫 잘못하면 걸려들 수 있는 뜻이 사방천지에 도사리고 있다.

그 유혹의 끝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치닫는 일도 있었다. 털털하고 유쾌해 보이던 사람, 중저음의 편안한 목소리만큼이나 모나지 않아 보이던 그. 영화 ‘기생충’에 출연해 선 굵은 연기력으로 세계적인 이름을 알린 그는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다. 착한 사람이라고 모두 입을 모으는 배우 L, 그는 어쩌다 그토록 무서운 풍랑에 휩쓸려버린 걸까.

잔뜩 식탐을 부리며 제앞으로 음식 접시를 끌어다 놓고 보는, 입 짧은 아이처럼 난 잘 읽지도 않을 책을 곁에 지녀야 마음이 놓이곤 한다. 책상 앞에 퍼 보지도 않은 책들이 쌓여있건만 또다시 새로운 책을 찾아 주문하고 있다. 다달이 서너 권씩 누군가의 갖은 품이 들어간 책을 공짜로 받아 미처 다 훑어보기도 전에 폐지 수거함에 넣으면서도 이전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다. 오늘도 읽는다고, 어쨌거나 책과 함께라고,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다고 위무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마음의 허공을 그대로 돌지언정 아무 것으로나 채우지는 않습니다.’ 피천득님의 수필 ‘구원의 여상’ 중 한 줄을 떠올리며 오늘도 핑계를 만든다. 마음의 허공을 아무것으로나 채우지 않기 위해 난 그 자리에 책을 두는 거라고..



기고 김중태 나무의사제도개선비대위원장

나무의사제도 조기 정착 ‘산림청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나무의사제도가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보호법(21조의 9) 하점 때문이다. 이 조 4항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시당초 이 예외조항이 포함됨으로서 나무의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로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수목에 대해 나무의사의 수목진료를 예외로 한 것은 큰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예외규정 때문에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목을 관리하면서 농약을 오남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전정으로 수목이 죽어가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한 공공기관의 경우 단체장의 기념 식수를 옥신 성분 선택성 제초제를 뿌려 고사케하는 경우도 보였다. 가로수가 닭발처럼 잘려나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뇌를 휘감아 온다.

한국나무의사협회 회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비전문가의 수목진료를 막고 나무의사의 진료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돼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더욱이 이 개정법률안은 타부처와 이해관계가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 더욱 그렇다.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된지 6년째다. 1300여 명의 나무의사들이 배출됐다. 생활권 수목 보호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인원수가 늘고 있는 만큼 일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와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 예외조항을 둬서서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다. 나무병원을 개업했다 폐업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사실 정부가 나무의사제도를 도입된 것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노거수 등 생활권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였다고 생각한다. 생활권 수목의 피해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뜻이 내면에 담겨 있다.

국회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국회가 어수선해서 그렇지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산림청의 의지다. 산림청이 나무의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얼마나 단단한 의지를 갖고 달려드느냐에 따라 21대 국회 통과 여부가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나무의사들은 최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작성, 남성현 산림청장 앞으로 보냈다. 나무의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산림청의 강한 의지를 기대해 본다.

불행, 불운, 빈곤도 전염된다

세상읽기

한정규

자유기고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또 끼리끼리라는 말도 한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행운과 늘 함께하는 행복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 가까이 있으면 옮기듯 불행한 일도, 좋지 못한 운도, 가난도, 전염이 된다.

불운한 사람과 늘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와 비슷하게 빨려들고 허덕이게 된다.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실패만 반복, 늘 불운과 불행이 겹쳐 빈곤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고생하게 된다. 반면 운이 좋은 사람은 강한 에너지가 작동해 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불행, 불운, 빈곤과 같은 역경은 누구나, 언제나, 겪을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불굴의 정신으로 그런 역경에 맞서 싸운다.

알아야 할 것은 역경도 전염성이 있다. 또한 그 점 잊지 말아야 한다. 불행, 불운한 사람과 가까이하다보면 전염병처럼 전염이 된다.

맹자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데리고 맹자교육을 위해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다.

맹자가 어렸을 때 생활이 어려워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사를 간 곳이 공동묘지 부근이었다. 이들이 멀다하고 상여를 맨 상여꾼들이 시신운구를 해 왔다. 그 때 상여를 맨 사람들이 운구를 하며 내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본 맹자가 매일 놀이를 하면서 상여소리를 흉내 내며 즐겼다. 그것을 본 맹자어머니는 아들을 그곳에서 키우다가는 상여꾼이 되겠다 싶어 이사를 결심하고 시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시장근처로 이사를 한 그 후부터는 아들 맹자가 시장상인들이 하는 호객행위

흉내를 내며 놀았다. 그래서 또 다시 이사를 하기로 하고 이사갈 곳을 걱정하다 이사한 곳이 글공부를 시키는 서당부근이었다.

서당근처로 이사를 한 뒤부터는 맹자가 밤낮없이 글 읽는 흉내를 내며 낮이면 땅바닥에 글을 쓰고 놀았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 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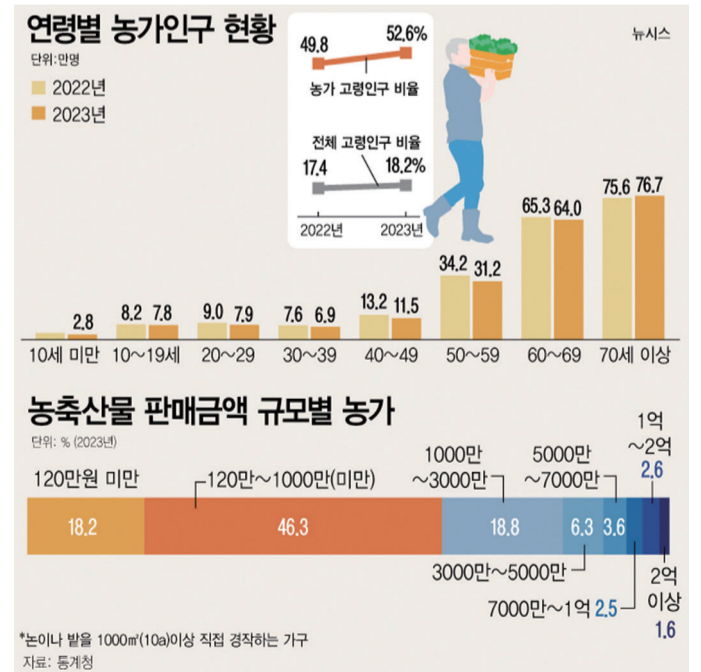
땅바닥에 글을 쓰고 책 읽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제 인류역사에 길이 남는 학자로서 맹자가 탄생한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맹자가 어렸을 때 서당근처로 이사를 한 것이 맹자가 글공부 병에 전염, 오늘날 인류역사에 전해지는 대사가가이자 학자가 됐다.

중요한 것은 불행이니 불운이니 가난과 행운, 부자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행한 사람, 불운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것 또한 전염병처럼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불운, 불행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 점 젊은이들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